

평택시의회 “민생이 우선”

신년 언론인과의 간담회 해감 지적사항 21% 증가

평택시의회는 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2023 신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의원 및 지역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개원 32년 이래 첫 대규모 언론 간담회로 제9대 평택시의회의 지난 7개월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는 한편 시의회가 올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유승영 의장은 이날 직접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지난해 주요 의정 성과, 회기 운영 결과 및 2023년 의회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한 데 이어 시정 및 의정 현안에 대한 언론인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시의회는 지난해 주요 의정 성과로 △ 이해와 협조를 통한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마무리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공정한 인사 운영 △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 정책지원관 임용과 정책지원팀 신설을 통한 전문성 강화 △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 등



평택시의회는 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2023 신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평택시의회)

을 내세웠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5회 60일간의 회기일정 동안 의결안건 139건, 의원발의 조례 31건, 시정질문 1건, 7분 자유발언 8건 및 3일간 24개소의 현장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은 총 396건으로 지난 2018년 제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대비 85건(21.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2023년 의회 운영 방향으로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활동 강화 △맛집형 교육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지원 △정책 의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시민 공모, 소통 강화, 역량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새로운 사업과 제도를 추진해 내실 있는 의회 운영으로 더욱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시민 공모 분야에서는 △평택시 초등

학생 공모전 운영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소통 강화 분야로 △SNS를 활용한 의정 홍보 강화 △의회 방문 견학 프로그램 추진, 역량 강화 분야로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 교육 △평택시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영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만을 바라보며 더욱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2023년 새해에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신동훈 기자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시흥시의회 특위 구성 “LH 책임 회피 너무해”

시흥시의회가 LH 도시조성·공공주택 사업 관련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 대책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시흥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LH 도시조

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안돈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거모·하중·장현·은계·시흥광명지구 등 LH와 관련된 도시조성 공공주택 사업이 시흥시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지만 LH는 타당한 이유 없는 사업의 지연, 무책임한 책임 회피 등으로 시민들이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

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유관부서·이해 관계자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LH사업에 대한 대처·대응방안을 구축하는 등 시의회의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안돈의·김찬심·윤석경·이

건섭·한지숙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돈의 위원, 부위원장에 윤석경 위원을 선임했다. 특위는 지난달 30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LH와 관련된 사업 현황과 같은 민원사례를 검토하고 지적사항 및 대응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형별·단계별 대응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다.

박근식 기자

경기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김선영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어

“중소기업의 경우 선제적 대응이 어려우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민주당, 비례)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노동정책 과제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정숙 선임연구원 등은 ‘경기도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중간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추후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 분석 및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간보고를 청취한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임창휘 의원은 “기업의 탈탄소로의 흐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노동환경 변동이 예상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선제적 대응이 어려우므로 이번 연구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도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노동정책 과제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영 회장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내연기관산업이 집적돼있는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집행부와 연구진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중간보고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연구 결과에 성실히 반영해 제도적 개선 및 조례 제·개정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구진을 독려했다.

김인창 기자

의회 단신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장성숙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지역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인력을 의무적으로 1명씩 뒤야 하지만 영·유아 100명 미만 시설은 간호인력 배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을 별도로 진행해 왔지만,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하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전체 1603곳 중 250곳으로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시의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계측 및 발달 사정,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정서장애 관리, 구강위생 교육, 시력검사 등을 진행하고 보육교직원들에게는 심폐소생술·응급상황대처 등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안종삼 기자



이선구 경기도의회 의원이 1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사전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도시재생 문제, 도민 삶의 증진으로”

이선구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직무대행) 이선구(민주당, 부천2) 의원은 1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재생 과장과 팀장에게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사전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보고에 앞서 이은선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는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기도형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도시재생과 중점 추진 업무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김인창 기자

중점 추진업무로는 △원도심 쇠퇴지역 도시재생 사업 추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공간 환경개선 추진이다.

이어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는 △원도심 쇠퇴지역 도시재생 사업 추진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관리 △경기도 업무 사전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 의원은 계획안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가 좀 더 나아가는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인천 여성 경력단절·예방 지원 확대

김유곤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지역 여성 경력단절 및 예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가 개정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여성 경제활동 정책 방향

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재취업한 여성의 정규직 비율은 36%에 불과해 재취업 여성들의 취업의 질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저임금의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포괄적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김유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및 예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옥외광고 LED전광판

수도권 전역 광고주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 드립니다.
서울시청·명동·동대문·종로3가·강남·홍대 등 다수지역 송출

문의 032)508-0006

일간경기 영상사업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47~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